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해외 종교지도자들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봉행한 한국전쟁, 세월호 참사, 네팔 대지진 등 희생자를 위한 수륙대제.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한 이날 수륙대제에서 진제 중정예하는 법어에서 “모든 애착과 집착, 원한과 미련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국토 극락세계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김형주 기자

분단 한반도에서 세계평화 다리 놓았다

‘세계 간화선무차대회’ <1면에 이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정예하 세월호희생자 조문

중정예하는 평소 강조하는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父母未生前 本來眞面目)’ 화두를 던지며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 ‘잡나’에 대한 통찰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나라의 마조도일 선사와 재가(在家) 선지식이었던 방거사 가족의 일화를 소개하며 언어분별을 벗어난 격외(格外)의 경지를 드러냈다. 가벼움과 졸렬함이 미덕이 되어버린 세대에, 인생의 참다운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였다는 평가다.

특히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인류에게 장군죽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나 혼자만 구원 받으면 되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오늘의 사회풍조 속에서 인격도야의 실천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올랐다. 중정예하는 무차대회 시작 직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광화문 분향소에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법어를 행동으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무차대회는 해외 종교지도자들이 세계평화기원문을 낭독하면서 대미를 장식했다. 이들은 세계평화기원문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떠한 폭력이나 배타적인 행위도 반대하며, 종교간 대화와 교류에 적극 협조하여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동대문~종로’ 행진 마친
국내외 10만명 연등행렬
광화문광장으로 합류
무차대회 의미 함께 나누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이자 국민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도 내외국인들의 성원 속에 빛을 발했다. 동국대 운동장에서 출발한 연등행렬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만방에 전했다. 풍물패를 필두로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발하고 길을 인도하는 인로왕반, 동서·남북·중앙 등 다섯 방향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오방불반이 길을 열었다. 이어 황금빛으로 치장한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아기부처님을 형상화한 연등이 등장했다. 연등의 개성과 기술력은 올해도 여전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타요버스’, ‘라바’ 등 만화캐릭터 연등이 눈길을 끌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한국불교가 선사한 풍경을 휴대용 카메라에 담았다. 행진을 마친 연등의 물결은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무차대회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연등회는 다음날 불교문화마당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거리를 제공했다. 형형색색의 장엄등은 크고 화려했으며 사람들은 불빛 속에서 아름다웠다.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

6·25 한국전쟁 전사자 비롯해
세월호 네팔 대지진 희생자 등

억울하게 숨진 영가들을 위해
조계사에서 수륙무차대제 봉행

한국전쟁 전사자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및 네팔 대지진 희생자 등 억울하게 숨진 영가들을 위해 종단이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제’를 봉행했다. 기원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수륙대제에는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전쟁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번 수륙대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희생된 모든 영가를 위로하자는 취지에서 거행됐다. 특히 국군과 연합군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중공군 등 적으로 싸운 군인들의 원혼도 달래

며 진정한 화해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최근 네팔 대지진 희생자의 위패도 모셔 추모했다.

수륙대제는 영가를 법회에 모시는 의식인 대령, 청정한 법수를 뿌려 범법의 공간을 깨끗이 하고 일정한 경계를 정하는 도량결계, 영가의 고단함과 번뇌를 씻어주는 관욕, 주요 내빈의 한화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조계종 중정예하는 법어에서 “살 자체가 한 조각 취모검(吹毛劍)이요, 죽음 그 자체도 한 조각 취모검이로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요, 모든 조사의 마음이며, 일체중생의 근본근원의 참된 마음”이라며 생사가 본래 없음을 일깨웠다. 아울러 “모든 애

착과 집착, 원한과 미련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국토 극락세계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다”며 “오늘 조계사에 펼친 수륙도량은 남과 북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영령들을 영원히 고통 없는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한다”고 수륙대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네팔의 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함께 위로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세계평화기원대회 및 무차대회에 참가한 세계 종교지도자들은 지난 16일 진제 중정예하와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220여 명과 현충원을 참배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중정예하 인솔 국립 현충원 ‘참배’

호국영령 극락왕생 세계평화 기원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세계평화기원대회 및 무차대회에 참가한 세계 종교지도자들은 지난 16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진제 조계종 중정예하와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해외 초청인사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종교지도자

들을 대표해 방명록에 서명한 진제 조계종 중정예하는 ‘南北平和統一 世界平和(남북평화 통일 세계평화)’, ‘無雲生嶺上 唯月落波心(무운생령상 유월낙파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에 달이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속에 잠겨 있음이로다”라는 의미로, 일체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종교지도자들도 현충탑 앞으로 이동해 묵념과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추모의식을 올리며 호국영령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서로의 국적과 종교는 달랐지만 전쟁으로 인한 원한을 풀고, 함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염태규 기자 cheff1@ibulgyo.com



왼쪽부터 캄보디아 승왕 텡봉스님, 호주불교연합회장 수프아모스님, 부타넷 창시자 뽀나와로스님, 스리랑카 시암 종 부총정 니안고다스님, 네팔 남갈 타망 린포체, 미국 제임스 코왈스키 신부, 앤서니 서네라 교수, 바와 제인 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진정한 평화는 마음 속에 있다”

해외종교지도자 인터뷰

“무차대회가 부처님 가르침
수행을 통한 삼매의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될 것 확신

인류의 삶에 도움 될 만한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무차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대회에 참석하는 해외 종교지도자들을 만났다. 종교지도자들은 거처인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환영만찬에 앞서 기자회견회를 갖고 소화를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의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며 “세계불교의 목소리를 결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한국불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대의 불교 웹사이트인 부타넷 창시자인 뽀나와로스님은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자비심을 발현시킬 때 궁극적인 세계평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차대회가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을 통한 삼매(三昧)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호주불교연합회 회장인 수프아모스님 역시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진정한 협력은 어렵다”면서 “결국

은 마음수행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의 취지 가운데 하나인 남북통일 또한 “외형적인 시스템 개선 이전에 남과 북의 국민들이 내면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차대회를 통해 수행의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순수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캄보디아 승왕(僧王)인 텡봉스님도 무차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텡봉스님은 “오늘

날 전 세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및 지 말아야 할 것은 인류가 이러한 역경을 항상 극복해왔다는 사실”이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고승과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무차대회에서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시암종 부총정 니안고다스님은 “같은 민족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현실은 다른 민족이 보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한민족이 조속한 통일을 이뤄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네팔 불교계를 대표해 방한한 남갈 타망 린포체 역시 인류의 대안으로 물질문명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꼽았다. 스님은 인류의 대안으로 물질문명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꼽았다. “알다시피 전 세계는 물질문명의 침단을 견고 있지만 그에 반비례해 정신적으로는 메마르고 빈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간의 탐욕과 갈등을 부추기는 물질문명은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불교수행으로 삼매를 얻어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고 강조했다. 무차대회에는 가톨릭 힌두교 등 나라 밖의 이웃종교 지도자들도 참가했다. 미국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 수석사제인 제임스 코왈스키 신부는 “지구 도처에 갈등이 산적한 이 시대에 한국불교의 주도로 전 세계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한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며 “한국불교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진제 중정예하의 초청으로 이번 대회에 함께 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힌두교인자인 바와 제인 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갈등의 90% 이상은 아마도 종교 갈등일 것”이라며 “불교와 힌두교의 공동적인 비폭력의 가치가 이번 무차대회를 통해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진제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무차대회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한민국 발전에 이룰 것”이라고 호평했다. 미국 세이크리드 하트대학 총장인 앤서니 서네라 종교학과 교수 역시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섭 기자